비영리콜로키움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2021. 04. 30.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윤민 (나눔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미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하은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임예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3월

목 차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 연구목적 및 의의
2. 이론적 배경	나눔 현황 연구 | 나눔지수 연구 |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3. 분석 방법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 헌혈 및 장기기증 | 나눔지수도출 |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4. 지역별 나눔 현황	개인기부 | 개인 자원봉사 | 헌혈 | 장기기증 | 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5. 지역별 나눔지수	지표별 기초값 | 지표의 표준화 결과 | 나눔지수 도출결과
6. 지역별 기부유형	지역 유형화 결과 | 기부 관련 법인 분석 | 기부 관련 법인 분포 | 지역 기부 유형화 결과 | 회귀분석: 법인 수, 법인 평균 모금액 | 회귀분석: 기부율
7. 결론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 이론적 함의

서론

1 2 3 4 5 6 7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의의

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 ‘나눔(philanthropy)’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초국적 상황

- 금융 및 경제위기: 장기적 경기침체, 불평등 심화
- COVID 19 발생: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

국내 상황

- 경기침체 장기화: 중산층 몰락, 양극화 심화
- 고용감소: 청년실업 급증
- 인구·가족구조변화: 생산가능인구감소, 돌봄수요확대

→

- 사회적 위험의 대상과 규모 증가
- 복지재정 부족 문제 발생
-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모색 필요성 형성

- ‘나눔(philanthropy)’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나눔 의미 확장: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한 복지재원 마련 +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생산과 축적

– 복지 자원연구 범위 확장: (기존)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규모 연구 → (최근) 민간나눔자원 규모 연구

1 서 론
연구목적 및 의의

- 나눔지수 선행연구 의의 및 한계
  - 의의: 나눔 개념에 대한 정교한 고찰, 나눔지수 구성의 논리성 구축, 전국 및 지역 단위 나눔 규모 파악,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한 나눔활성화 전략 수립 근거 구축 등
  - 한계: 나눔 지수 항목의 대표성(예: 법인 매출대비 기부), 부가지표의 타당성(가구경조사비, 사회적관계망, 단체참여)

➡ 직관적이고 유용한 나눔지수 도출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연구 필요성 강조

- 연구목적
  - 첫째, 개인기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의 지역별 나눔현황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기부자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기부 추이, 지회별 개인기부자 규모 및 기부금액 파악
  - 둘째, 핵심적인 나눔의 지표를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별 나눔지수 산출
  - 셋째, 지역의 나눔 현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간 관계 확인, 지역 및 개인차원에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이론적 배경

1 2 3 4 5 6 7

나눔 현황 연구

나눔지수 연구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2 이론적 배경
나눔 현황 연구

나눔실태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 응답자의 53.4%가 최근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음(이전 해보다 0.8%p 하락) – 기부액은 '10~50만원 미만', 기부방법은 '지로/계좌이체'가 가장 많음 – 응답자의 40.3%는 최근 1년간 자원봉사/헌혈 경험이 있음(이전 해보다 2.1%p 상승)
2018 기빙코리아 (일반국민 조사) 아름대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8)	– 2017년 한 해 기부 경험한 사람 53.3%(2015년 45.6%) – 기부자 중 국내 사회복지 자선분야 기부 비율은 73.9%, 기부액 평균 24.9만원 – 2017년 한 해 자원봉사 경험한 사람은 32.3%, 기부와 자원봉사 둘 다 경험한 비율 22.5%
국세통계연보 국세청(2019)	– 2018년 공제대상 기부액은 13조 8천 억원(2017년 12조 9천 억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 응답자의 13.74%만이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 있다고 응답(저소득층 3.66%, 일반가구 15.65%) – 가구원의 기부액수 평균 40만원(저소득층 12만원, 일반가구 42만원) – 연간 자원봉사횟수 전체 가구 6회(저소득가구 13회, 일반가구 6회)
2020 도시정책지표 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2020)	– 2019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3.6%(2018년 12.2%) – 2019년 서울시민의 32.7%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변(201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 – 기부 방법은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12.9%),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11.9%)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2 이론적 배경
나눔지수 연구 (1) 국외 나눔지수 연구

- 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 정의: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세 영역의 참여율을 합산하여 도출한 평균값을 나눔지수로 산출
  - 지난 10년간 미국의 세계기부지수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미얀마, 뉴질랜스 순이었음
  - 한국은 전체 32%, 이웃돕기 43%, 기부 34%, 자원봉사 20%로 전체 57위로 나타남

-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세계나눔환경지수) / Global Philanthropy Tracker
  - 환경 index 구성 : 운영의 편의성, 세제혜택, 국제적 유동성,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 미국, 캐나다, 북유럽 및 서유럽, 오세아니아 등 GDP가 높은 지역의 나눔환경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racker 구성 : 국제개발협력, 송금액, 민간자본투자의 자본 흐름을 경제소득수준으로 구분해 제시
  - 분석대상 47개국의 2018년 기부 유출액은 680만 달러, ODA, 송금액, 민간자본투자를 포함해 총 8,340억 달러 기부
  -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선유출액은 9억달러로 7위, GNI 대비 자선유출액은 0.05%로 14위

2 이론적 배경
나눔지수 연구 (1) 국외 나눔지수 연구

- Doing Good Index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 평가영역: 정부규제, 세금 및 재정정책, 공익생태계, 정부조달
  - 가장 적절한(Doing Well) 기부 환경 가진 국가는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모두 Doing Better 그룹에 속하였으며, 보고서는 소셜섹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기부자와 NGO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소셜섹터에 호의적인 기부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함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2020). Doing Good Index 2020.

2 이론적 배경
나눔지수 연구 (2) 국내 나눔지수 연구

- 나눔지수를 다룬 연구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행한 연구로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김소영 외(2018)이 있음
- 이 연구들은 나눔지수를 확장한 대안적 개념을 수립하고 기부지수, 핵심지수, 부가지수로 분류하여 제시하며, 본 연구의 관점을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음

년도	분석대상	지수유형	지수결과	비고
김교성 외 (2015)	한국 나눔자원 지수, 개인, 가구, 기업	• 기부지수(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 핵심지수(기부지수, 상호부조) • 부가지수(핵심지수, 사회참여, 네트워크)	• 2011년 기부지수는 서울1위, 핵심 및 부가지수는 서울과 울산이 1위 • 2013년 기부, 핵심, 부가지수모두 서울과 대전1위	국내지역비교
한창근 외 (2016)	한국 나눔자원 지수, 개인, 가구, 민간기업, 공기업		• 2015년 기부지수는 강원1위, 핵심지수는 강원1위, 부가지수는 강원1위	국내지역비교
김소영 외 (2018)	민간 나눔자원 총량 추계, 나눔지수, 개인, 법인	• 민간나눔자원 총량: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법인 현금기부 • 기부지표: 기부지표(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법인매출 대비 기부), 확대지표(개인 물품기부, 헌혈, 장기기증), 부가지표(가구 경조사비, 사회적 관계망, 단체참여)	• 2017년 개인, 법인의 나눔 자원 총량 9조 2621억원 • 각 1위 지역은 개인현금기부 서울, 자원봉사 제주, 법인 기부 대전, 개인 물품기부 서울, 헌혈 대전, 가구 상호부조 전남, 사회적 관계망 제주, 단체참여 인천	총량 추계 및 국내 지역 비교

자료: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연구내용은 김소영 외(2018: 59) 재인용.

2 이론적 배경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 **인구통계학적 요인**
  -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개인의) 소득수준
- **사회·경제적 요인**
  - 필요의 인식: 저소득층 비율, 장애인/노인 비율, 언론영향력
  - 권유 요인: 지역내 사회복지기관의 수
  - 비용과 이익
    : 지역의 소득 수준(GDP, 불평등 정도), 지역의 지출 수준 (건강지출, 교육지출, 서비스지출, 공공복지지출)
  - 그 외 요인들
    : 돈과 부에 대한 태도, 종교 유무, 종교 종류, 이주민 비율, 도시·농어촌 여부, 인구밀집 정도, **지역의 모금 법인 또는 재단**
- **문화적 요인**
  - 기부에 대한 인식
  - 정치·문화적 인식: 도덕적 정치문화 vs 개인주의적 정치문화
- **제도적 요인**
  - 조세 관련: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
  - 자선단체 관련: 운영의 용이성, 투명성
  - 정부 관련: 정부 효율성, 부패 통제 정도
- **사회적 자본 요인**
  - 신뢰, 호혜성, 사회적 유대, 소속감, 지역문화, (친사회적)규범, 시민참여(투표율)

- 나눔 지역비교 관련 요인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제시되며,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특히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역별 나눔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Bekkers(2016)는 기부자의 지역별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필요의 인식', '권유', '비용과 이익'** 등이 지역별 기부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2 이론적 배경
지역별 나눔 영향요인

- 선행연구의 나눔지수 지표와 항목 및 본 연구의 나눔지수 지표와 항목

김교성 외(2015), 한창근 외(2016) 나눔지수 연구			
지표명			항목
부가지수	핵심지수	기부지수	①개인현금기부
			②개인자원봉사
			③법인현금기부
			④개인물품기부
			⑤헌혈
			⑥장기기증
			⑦가구경조사비
			⑧사회적관계망
			⑨단체참여

→

김소영 외(2018) 나눔지수 연구				
지표명				항목
나눔지수	확대기부지수	기부지수	기부지표	①개인현금기부
				②개인자원봉사
				③법인매출대비기부
			확대지표	④개인물품기부
				⑤헌혈
				⑥장기기증
			부가지표	⑦가구경조사비
				⑧사회적관계망
				⑨단체참여

선행연구 한계 보완
나눔지수 산출간결성
직관적 이해 가능성

본 연구의 나눔지수	
지표명	항목
핵심지표	① 개인 현금기부
	② 개인 자원봉사
확대지표	③ 헌혈
	④ 장기기증

선행연구에서
구성한 지표의 한계

- 지역 대표성 측면 (예: 법인 매출대비기부)
- 전국 수준의 자료 확보 측면 (예: 현물기부)
- 나눔 정의를 반영하여 포함한 부가지표의 타당성 측면 (예: 가구경조사비, 사회적관계망, 단체참여)

분석 방법

1 2 3 4 5 6 7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현혈 및 장기기증

나눔지수 도출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3 분석 방법
개인기부 및 자원봉사

내 용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의 최근(2015, 2017, 2019년) 추세 및 지역별 현황을 기술 분석을 통해 제시	
데이터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General Survey)	
설문 내용	개인 기부	- 기부 여부, 기부 종류, 기부 내용 - 기부 경로(대상자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직장, 기타) - 기부 횟수, 기부 금액, 기부 주기 - 기부 희망분야, 기부 문화 확산, 향후 기부의사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 여부 - 자원봉사 활동분야(아동, 환경, 교육, 행사, 재해, 기타) - 참여 횟수, 활동 시간, 활동 주기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향후 자원봉사 활동 의사

3 분석 방법
헌혈 및 장기기증

- 헌혈
  - 대한적십자사『혈액사업통계연보』자료 사용
  - 성별/연령별/지역별 헌혈 건수 활용
  - 지역별(시도별) 헌혈 건수의 경우, 일부 지역이 통합된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어,
    각 지역 헌혈의 집 기준으로 계수된 헌혈 건수의 비율을 대입하여 산출

- 장기기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등 이식 및 인체 조직기증 통계연보』자료 사용
  - 성별/연령별/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및 장기 등기증희망자 수 활용
  - 장기등 이식건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역 기준으로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으며,
    장기이식, 안구이식, 골수이식, 말초혈이식 건수를 합하여 계산

3 분석 방법
나눔지수 도출

기초값 산출 → **표준화** → **지수도출**

(지역별 인구 수 대비)
- 개인 기부자 수
- 개인 자원봉사자 수
- 헌혈 건수
- 장기등 이식건수

(평균 100, 표준편차 10)
- 개인 현금기부
- 개인 자원봉사
- 헌혈
- 장기이식

핵심지수 확대지수

나눔지수

핵심지수: 개인 현금기부, 개인 자원봉사
확대지수: 헌혈, 장기이식

※ 세종의 헌혈 건수, 세종 및 경북의 장기등 이식건수는 도출 근거 부족 및 값의 부재로 전국값으로 대체하여 지수 산출

3 분석 방법
지역별 나눔 요인 및 유형

분석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데이터
- 국세청 법인 공동자료
- 통계청 제공 시군구 데이터

분석방법

○ 지역 특성, 기부 형태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

→ 탐색적 수준에서 기부와 관련된 지역 특성을 살핌

- **유형화** : 자기 조직화 지도 (Self-organizing Map, SOM)

  유형화 결과를 2차원의 평면에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회귀분석** : 선형혼합효과회귀 모형 (Linear Mixed Effect Regression, LMER)

  지역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토

  (지역을 무작위 효과로 고정효과로 모형에 투입)

지역별 나눔현황

1 2 3 4 5 6 7

개인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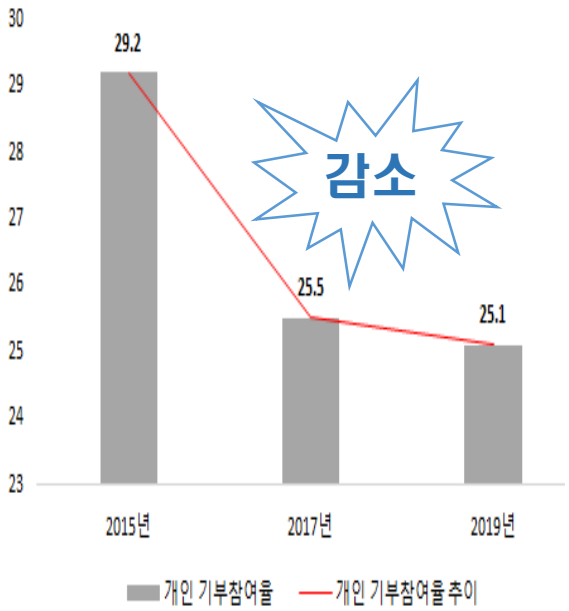
개인 자원봉사

헌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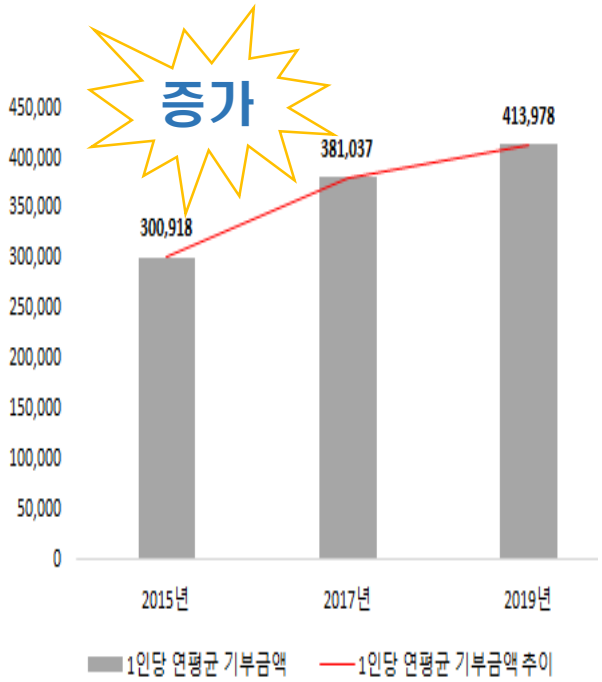
장기기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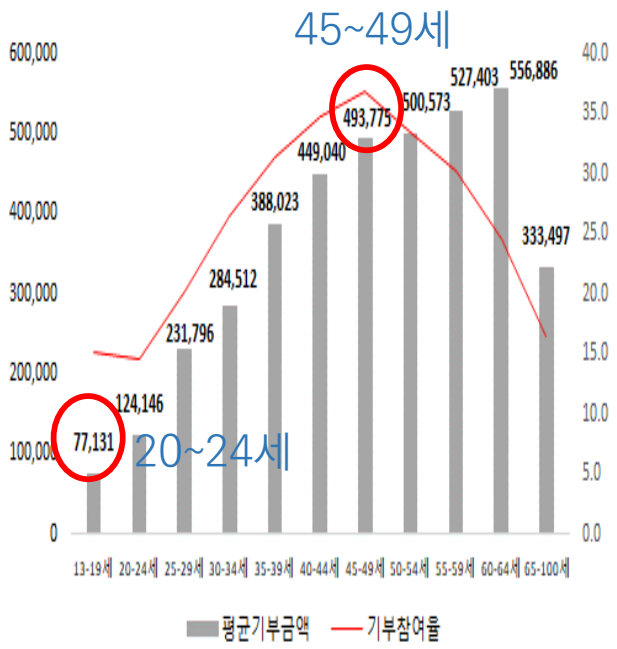
4 지역별 나눔 현황
개인 기부 (1)



〈 개인 기부참여율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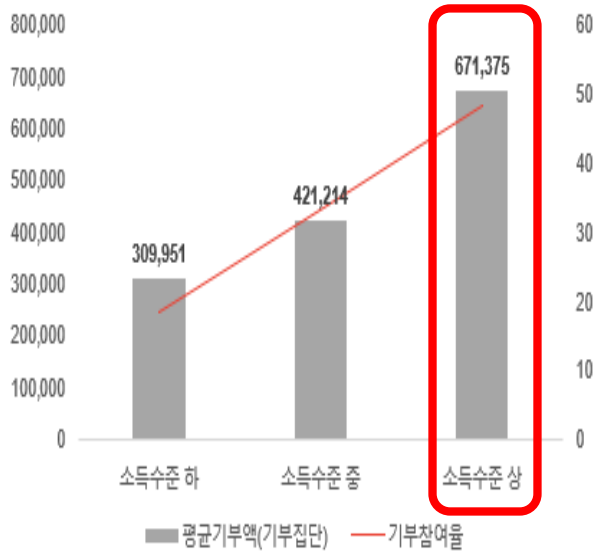


〈 1인당 연평균 기부금액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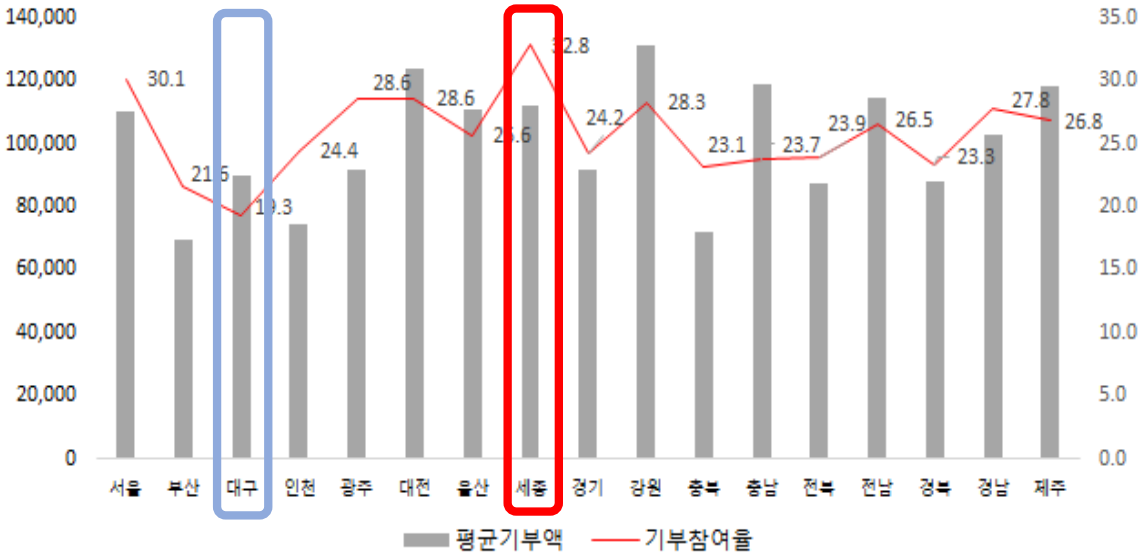


〈연령별 연평균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2015-2019)〉

4 지역별 나눔 현황
개인 기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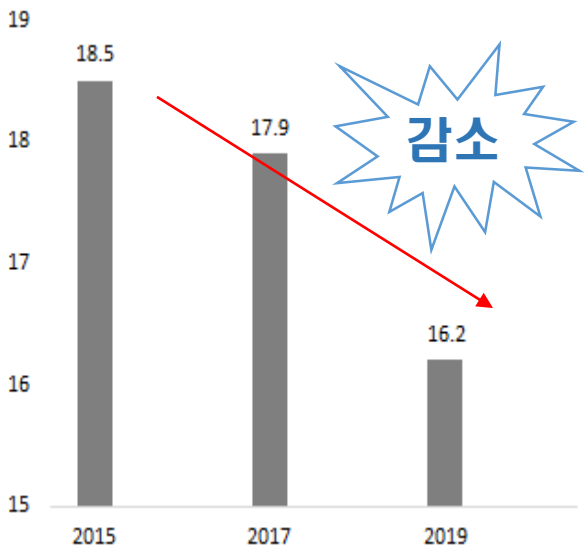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평균기부액 및 기부참여율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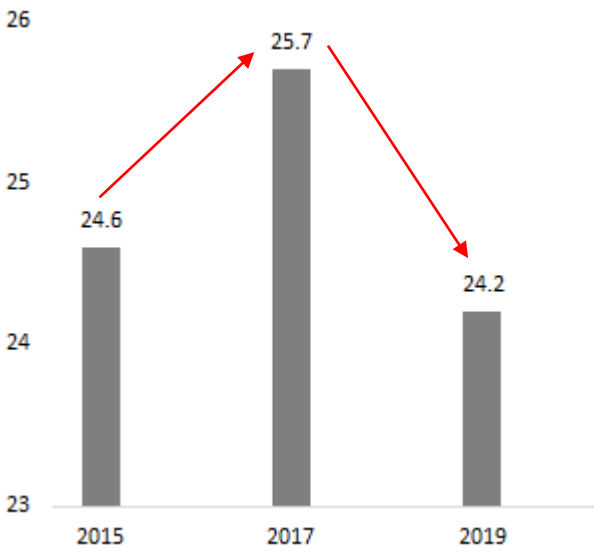


〈 행정구역별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액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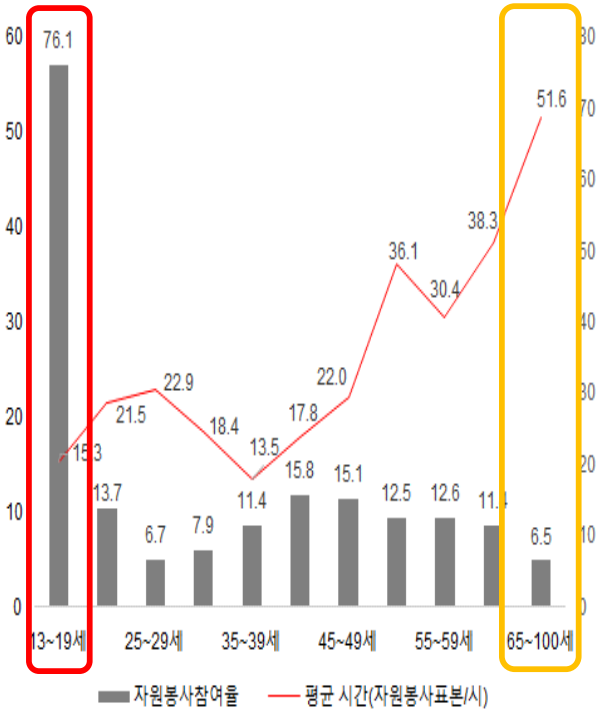
4 지역별 나눔 현황
개인 자원봉사 (1)



〈 개인 자원봉사 참여 여부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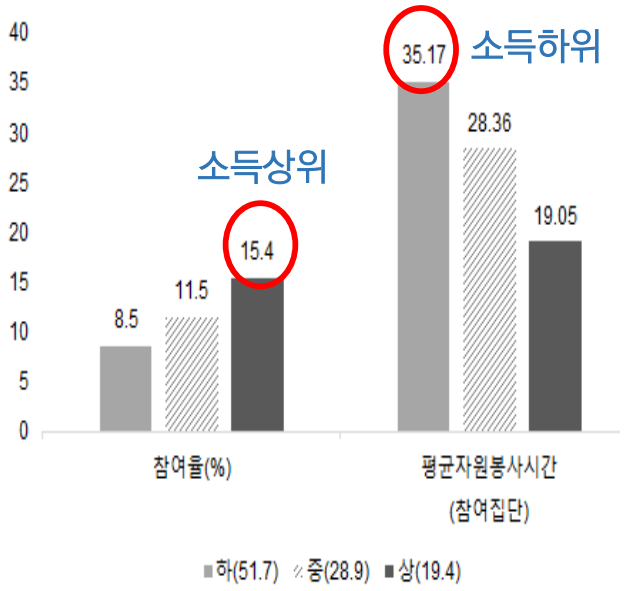
〈 평균 자원봉사 참여시간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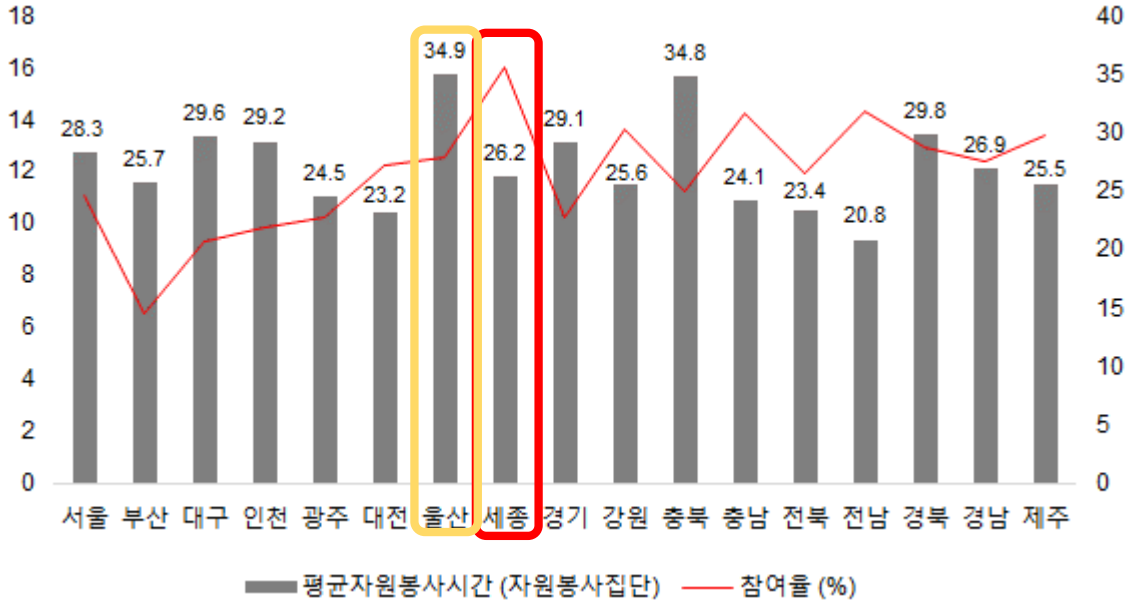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2015-2019)〉

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지역별 나눔 현황
개인 자원봉사 (2)



〈 소득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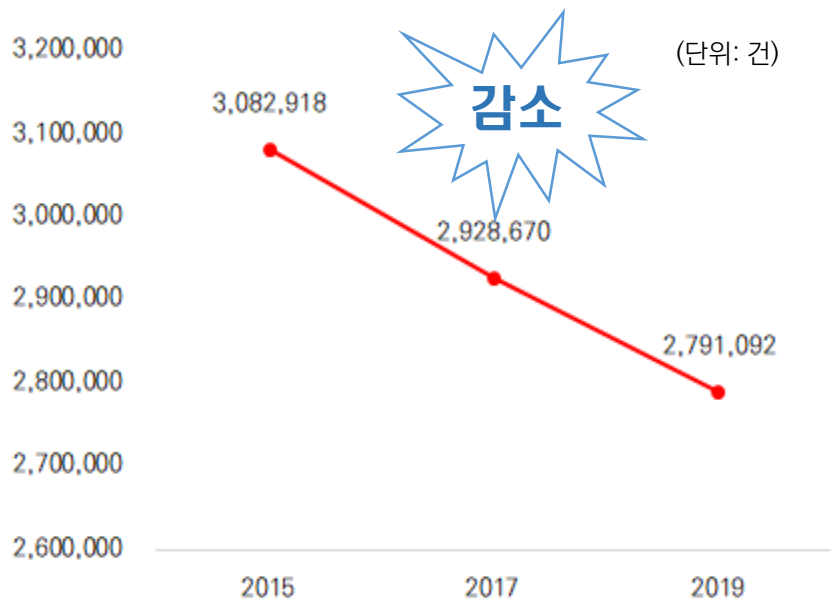


〈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시간 (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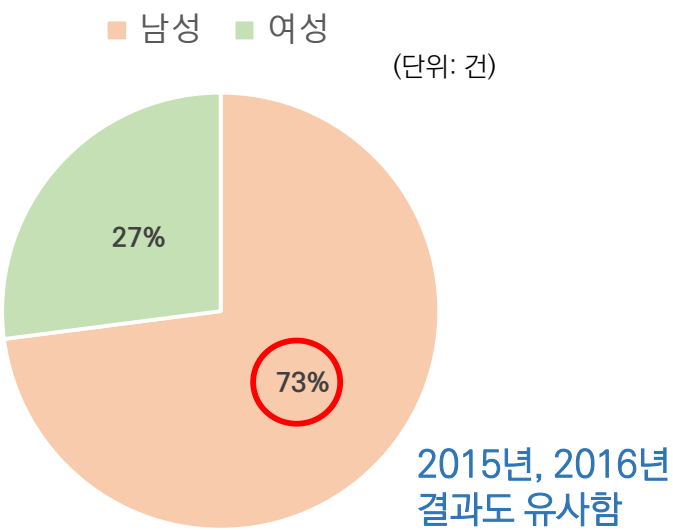
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지역별 나눔 현황

헌혈 (1)



〈 3개년도 전체 헌혈건수 추이 (2015-2019) 〉



〈 성별 헌혈건수 (2019) 〉

4 지역별 나눔 현황
헌혈 (2)

〈 3개년도 지역별 헌혈건수 (2015-2019) 〉

(단위: 건, %)

지역	2015		2017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1,062,324	34.5	1,015,159	34.7	900,964	32.3
부산	238,050	7.7	215,280	7.4	213,597	7.7
대구	168,683	5.5	156,041	5.3	150,648	5.4
인천	181,013	5.9	163,724	5.6	158,557	5.7
광주	153,549	5.0	152,653	5.2	143,184	5.1
대전	161,768	5.2	155,777	5.3	160,466	5.7
울산	94,025	3.0	86,512	3.0	91,793	3.3
세종	192,682	-	183,042	-	174,443	-
경기	218,945	7.1	211,129	7.2	211,443	7.6
강원	149,795	4.9	154,964	5.3	153,606	5.5
충북	99,627	3.2	95,644	3.3	94,251	3.4
충남	90,207	2.9	86,866	3.0	89,481	3.2
전북	128,878	4.2	114,233	3.9	108,908	3.9
전남	68,023	2.2	67,626	2.3	63,430	2.3
경북	91,631	3.0	84,763	2.9	81,834	2.9
경남	135,724	4.4	130,495	4.5	132,957	4.8
제주	40,676	1.3	37,804	1.3	35,973	1.3
전체	3,082,918	100.0	2,928,670	100.0	2,791,0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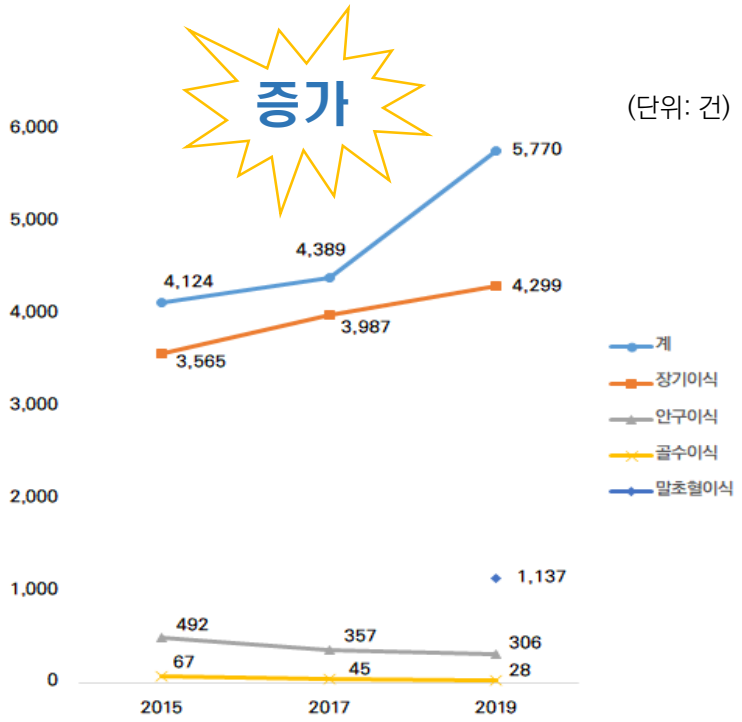
주1) 현혈통계연보상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 가령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의 경우는 2019년도 해당지역 헌혈의 집 헌혈건수를 근거로 산출한 구성비(%)를 적용하여 임의로 구분
주2) 세종의 경우 헌혈실적을 도출할 근거가 부재하여 세종을 제외한 전국 평균값으로 대체(% 미표시)

- 2019년 기준
  - 헌혈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2.3%)
  - 그 다음으로 부산, 경기, 대전 순
  - 헌혈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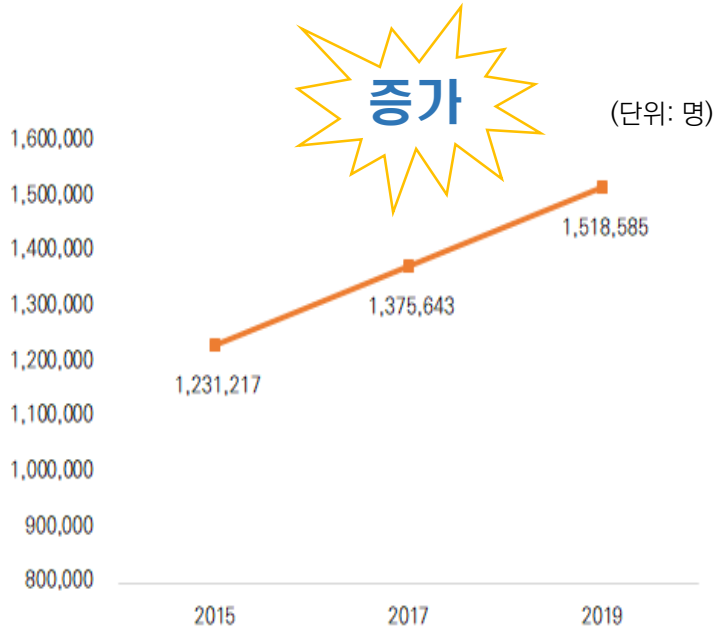
- 3개년 간
  - 전체 헌혈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또한 감소 추세
  - 전체 헌혈건수의 3분의 1이 서울에서 기록됨

4 지역별 나눔 현황

장기기증 : 장기등 이식건수와 장기등기증희망자 비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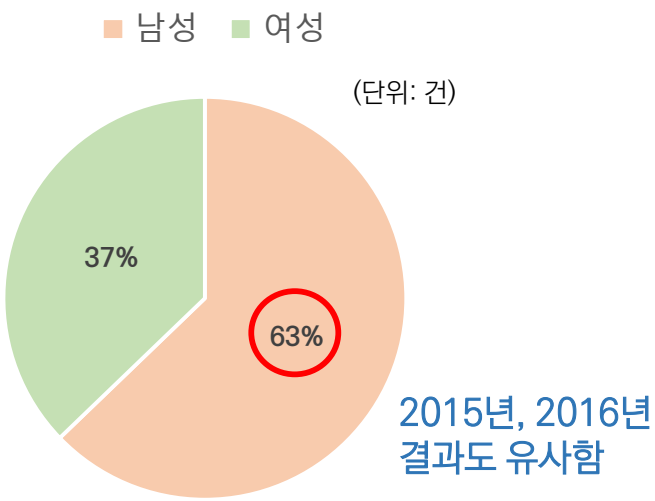
〈 3개년도 전체 장기등 이식건수 추이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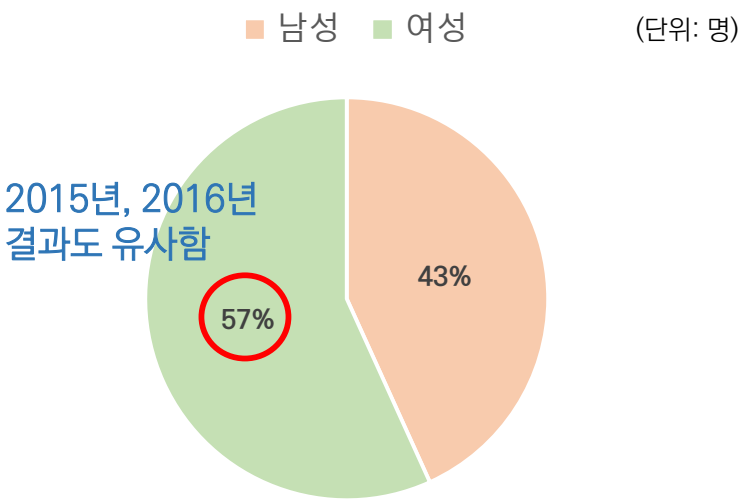
〈 3개년도 장기등기증희망자 추이 (2015-2019 각년도 누계) 〉

4 지역별 나눔 현황

장기기증 : 장기등 이식건수와 장기등기증희망자수 비교 (2)



〈 성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9) 〉



〈 성별 장기등기증희망자 수 (2019) 〉

4 지역별 나눔 현황

장기기증 : 장기등 이식건수와 장기등기증희망자 비교 (3)

〈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 이식건수 (2015-2019) 〉

(단위: 건, %)

지역	2015		2017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2,512	60.9	2,644	60.2	3,724	64.5
부산	262	6.4	291	6.6	323	5.6
대구	352	8.5	349	8.0	385	6.7
인천	106	2.6	133	3.0	126	2.2
광주	93	2.3	103	2.3	80	1.4
대전	72	1.7	52	1.2	89	1.5
울산	63	1.5	63	1.4	73	1.3
세종	0	0.0	0	0.0	0	0.0
경기	370	9.0	472	10.8	578	10.0
강원	53	1.3	47	1.1	54	0.9
충북	2	0.0	5	0.1	8	0.1
충남	30	0.7	52	1.2	52	0.9
전북	57	1.4	49	1.1	33	0.6
전남	46	1.1	35	0.8	81	1.4
경북	0	0.0	0	0.0	0	0.0
경남	98	2.4	87	2.0	155	2.7
제주	8	0.2	6	0.1	9	0.2
전체	4,124	100.0	4,389	100.0	5,7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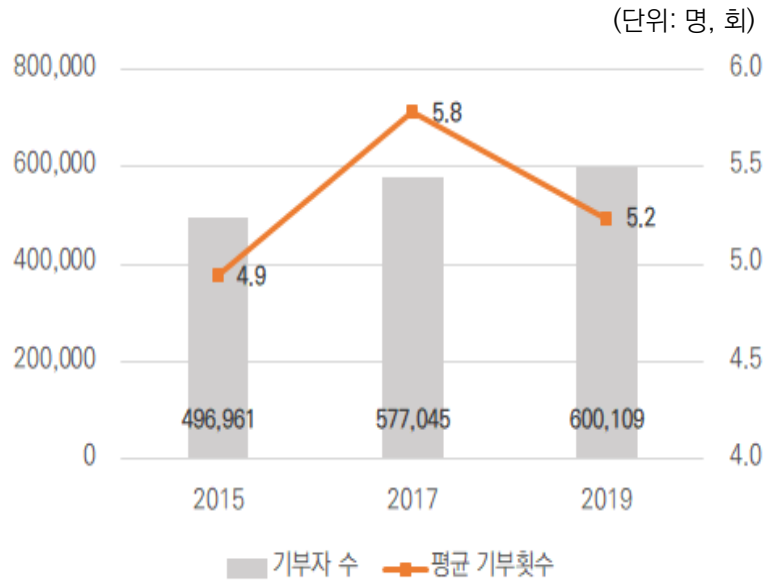
주) 의료기관 지역 기준

〈 3개년도 지역별 장기등기증희망자 (2015-2019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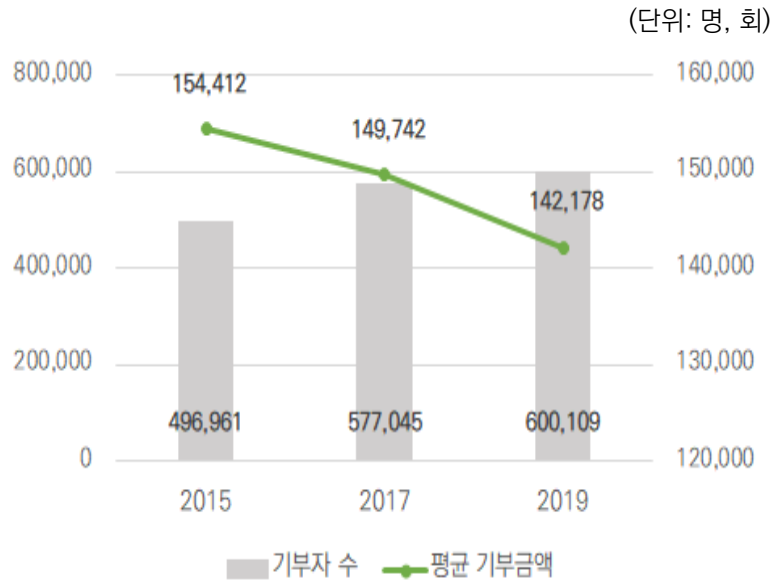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2015		2017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	337,477	27.4	366,234	26.6	394,168	26.0
부산	87,603	7.1	104,695	7.6	119,870	7.9
대구	52,323	4.2	57,196	4.2	63,352	4.2
인천	62,195	5.1	68,818	5.0	74,742	4.9
광주	27,895	2.3	31,577	2.3	35,327	2.3
대전	36,939	3.0	41,700	3.0	49,786	3.3
울산	33,113	2.7	36,470	2.7	39,892	2.6
세종	1,647	0.1	2,264	0.2	2,744	0.2
경기	293,675	23.9	323,267	23.5	353,773	23.3
강원	35,380	2.9	39,408	2.9	43,362	2.9
충북	29,614	2.4	34,023	2.5	37,665	2.5
충남	36,074	2.9	42,199	3.1	47,473	3.1
전북	47,127	3.8	55,786	4.1	62,264	4.1
전남	30,220	2.5	36,970	2.7	42,328	2.8
경북	44,707	3.6	50,014	3.6	54,769	3.6
경남	63,132	5.1	71,524	5.2	81,726	5.4
제주	11,370	0.9	12,766	0.9	14,522	1.0
공백	726	0.1	732	0.1	822	0.1
전체	1,231,217	100.0	1,375,643	100.0	1,518,585	100.0

4 지역별 나눔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1)



〈 3개년도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횟수 추이 (2015-2019) 〉



〈 3개년도 개인 기부자 수 및 기부금액 추이 (2015-2019) 〉

- 개인 기부자 수는 **증가** 추세
- 평균 기부횟수는 2017년에 증가했다가 2019년에 감소
-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 추세

4 지역별 나눔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2)

〈 3개년도 지회별 개인 기부자 수 (2015-2019) 〉

(단위: 명, %)

지회	2015		2017		2019	
	빈도	%	빈도	%	빈도	%
중앙	36,208	7.3	38,424	6.7	41,930	7.0
서울	92,367	18.6	87,233	15.1	79,963	13.3
부산	16,957	3.4	16,217	2.8	17,397	2.9
대구	16,421	3.3	15,716	2.7	15,757	2.6
인천	16,098	3.2	23,089	4.0	34,001	5.7
광주	21,168	4.3	18,498	3.2	23,659	3.9
대전	20,113	4.0	21,914	3.8	26,105	4.4
울산	13,662	2.7	23,042	4.0	19,989	3.3
세종	994	0.2	7,981	1.4	3,544	0.6
경기	51,325	10.3	59,573	10.3	76,228	12.7
강원	27,489	5.5	70,975	12.3	52,874	8.8
충북	23,971	4.8	22,959	4.0	13,130	2.2
충남	20,280	4.1	19,513	3.4	30,909	5.2
전북	25,063	5.0	25,254	4.4	28,436	4.7
전남	29,742	6.0	28,580	5.0	33,141	5.5
경북	39,056	7.9	47,294	8.2	42,702	7.1
경남	37,571	7.6	41,224	7.1	47,553	7.9
제주	8,476	1.7	9,559	1.7	12,791	2.1
전체	496,961	100.0	577,045	100.0	600,109	100.0

- 2019년 기준
  - 기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회는 서울(13.3%)
  -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순
  - 기부자 수가 가장 적은 지회는 세종(0.6%)

- 3개년 간
  - 전체 기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인천,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또한 증가 추세
  - 반면, 서울, 충북은 지속적으로 감소
  - 서울·경기 지회의 기부자 수 비중이 타 지회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음

4 지역별 나눔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3)

〈 3개년도 지회별 개인 기부횟수 (2015-2019) 〉

(단위: 회)

지회	2015	2017	2019
중앙	4.8	5.5	4.8
서울	5.3	5.2	5.3
부산	5.8	5.0	5.6
대구	7.3	8.2	7.2
인천	5.7	6.6	5.2
광주	6.1	7.3	5.6
대전	5.3	6.7	6.6
울산	3.5	7.3	7.6
세종	2.7	4.1	4.2
경기	4.4	5.7	5.3
강원	8.0	9.4	6.1
충북	2.2	2.8	4.7
충남	3.1	3.7	3.7
전북	5.2	5.5	5.9
전남	2.7	3.6	3.3
경북	6.1	5.2	5.9
경남	3.5	3.1	3.2
제주	5.9	6.6	5.6
전체	4.9	5.8	5.2

- 2019년 기준
  - 평균 기부횟수가 가장 높은 지회는 울산(7.6회)
  - 그 다음으로 대구, 대전, 강원 순
  - 평균 기부횟수가 가장 낮은 지회는 세종(3.2회)
- 3개년 간
  - 전체 평균 기부횟수는 증가하였다가 감소
  - 중앙,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 지회 또한 전체와 유사한 추이
  - 한 편,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회의 평균 기부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4 지역별 나눔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기부자 현황 (4)

〈 3개년도 지회별 개인 기부금액 (2015-2019) 〉

(단위: 원)

지회	2015	2017	2019
중앙	324,400	242,315	205,666
서울	150,643	160,389	171,131
부산	243,984	292,553	290,544
대구	191,299	297,855	266,070
인천	200,395	193,109	121,524
광주	135,110	188,462	145,864
대전	120,305	118,617	112,203
울산	156,479	124,273	115,161
세종	200,663	72,346	147,421
경기	170,245	154,954	133,717
강원	124,870	57,939	78,843
충북	103,593	125,250	130,490
충남	113,614	172,798	116,677
전북	100,379	154,685	140,922
전남	85,595	122,783	106,936
경북	91,021	95,968	132,738
경남	133,709	122,228	100,621
제주	278,094	325,543	214,627
전체	154,412	149,742	142,178

- 2019년 기준
  -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회는 부산 (290,544원)
  - 그 다음으로 대구, 제주, 중앙 순
  - 평균 기부금액이 가장 낮은 지회는 강원(78,843원)
  - 제주 지회의 경우, 개인 기부자 수는 적은 편이나 평균 기부금액은 높은 편임

- 3개년 간
  - 전체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
  - 중앙,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지회 또한 감소 추세
  - 반면, 서울, 충북, 경북 지회는 증가 추세
  - 중앙, 부산, 대구, 제주 지회는 지속적으로 높음

지역별 나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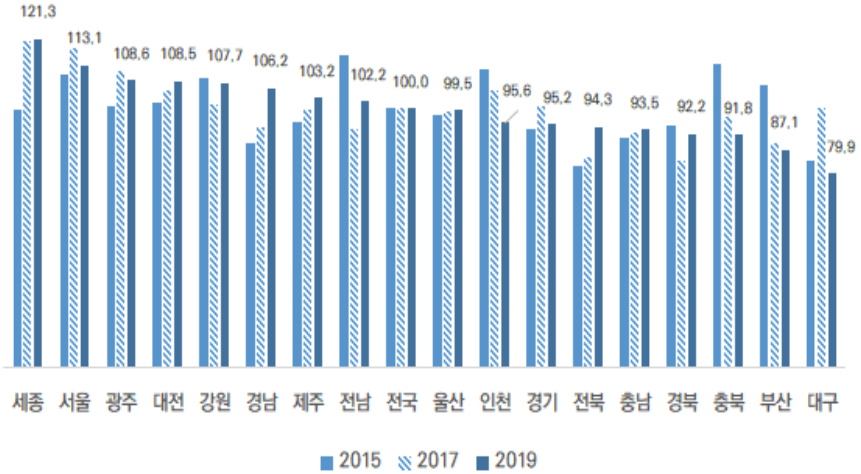
1 2 3 4 **5** 6 7

지역별 기초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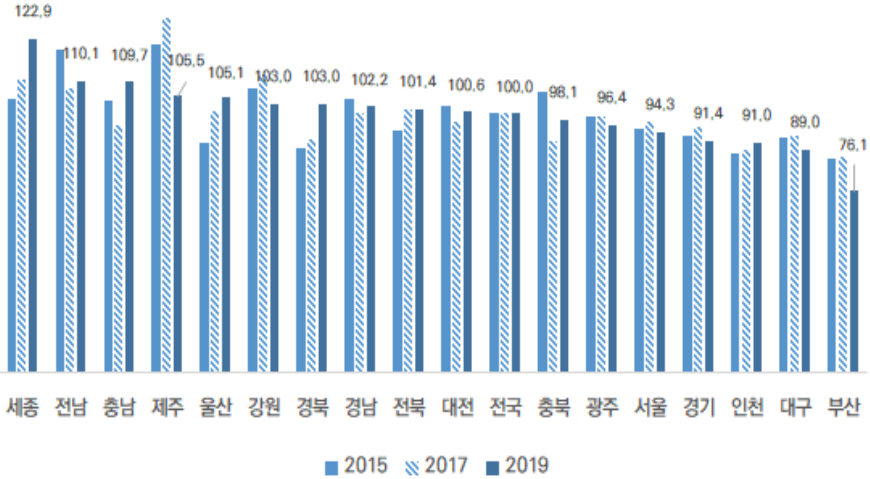
지표의 표준화 결과

나눔지수 도출 결과

5 지역별 나눔지수
지표의 표준화 결과 (1) 지표별 표준화 점수



〈 3개년도 개인 현금기부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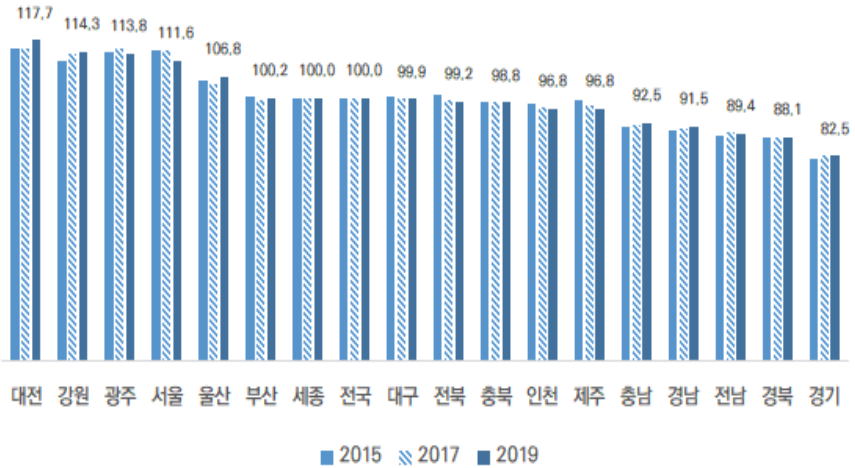


〈 3개년도 개인 자원봉사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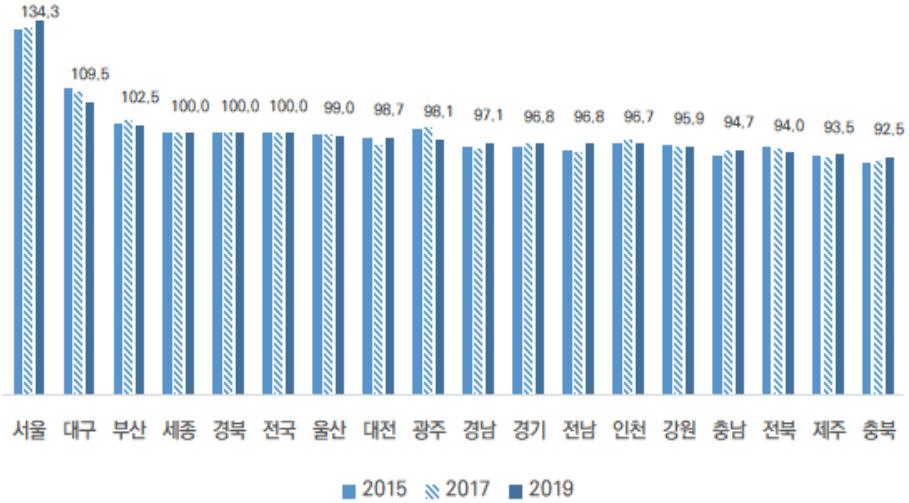
[핵심지표]

- 현금기부
  - 3년간 다양한 추이를 보임
  - 세종(121.3), 서울(113.1), 광주(108.6) 순으로 높고, 대구(79.9)가 가장 낮음
- 자원봉사
  - 3년간 다양한 추이를 보임
  - 세종(122.9), 전남(110.1), 충남(109.7) 순으로 높고, 부산(76.1)이 가장 낮음
- **세종**은 현금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대구**와 **부산**은 두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5 지역별 나눔지수
지표의 표준화 결과 (1) 지표별 표준화 점수



〈 3개년도 헌혈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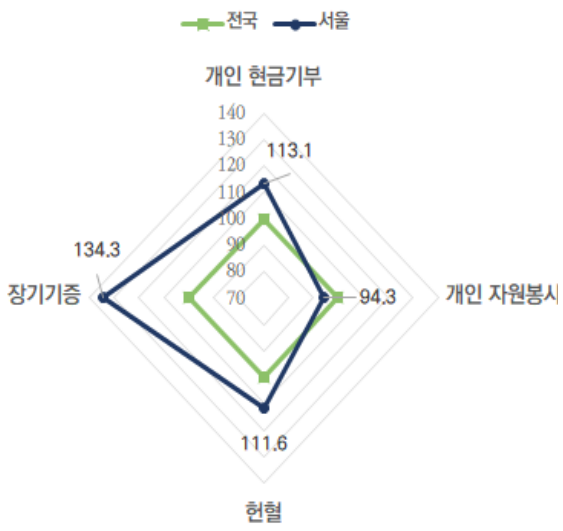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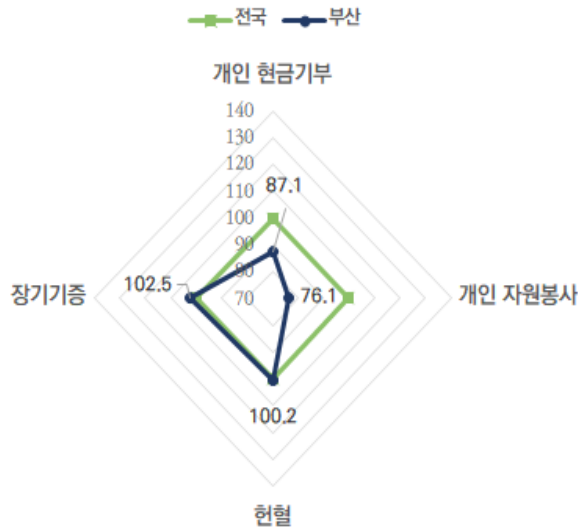
〈 3개년도 장기기증 표준화 점수 추이 (2015-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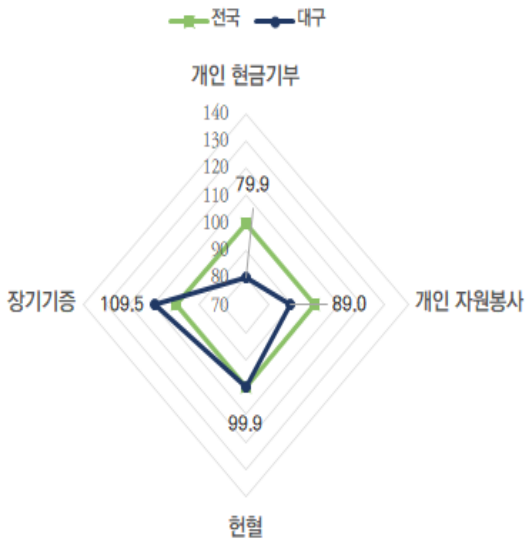
[확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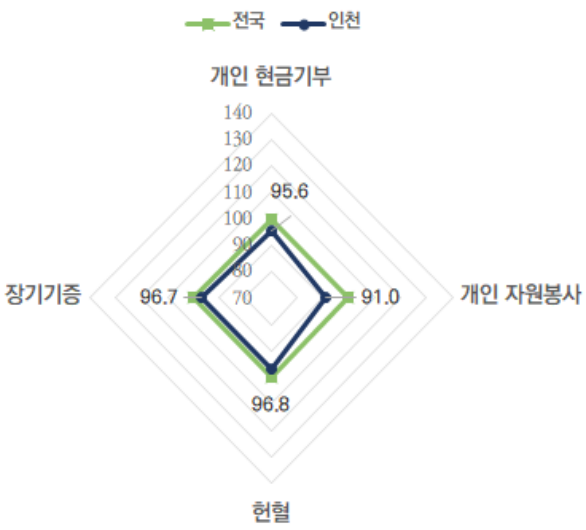
- 헌혈
  - 3년간 변화 폭이 크지 않음
  - 대전(117.7), 강원(114.3), 광주(113.8) 순으로 높고, 경기(82.5)가 가장 낮음
- 장기기증
  - 3년간 변화 폭이 크지 않음
  - 서울(134.3), 대구(109.5), 부산(102.5) 순으로 높고, 충북(92.5)이 가장 낮음
- 헌혈은 헌혈의 집, 장기기증은 장기이식 의료기관 기준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비교적 **일관적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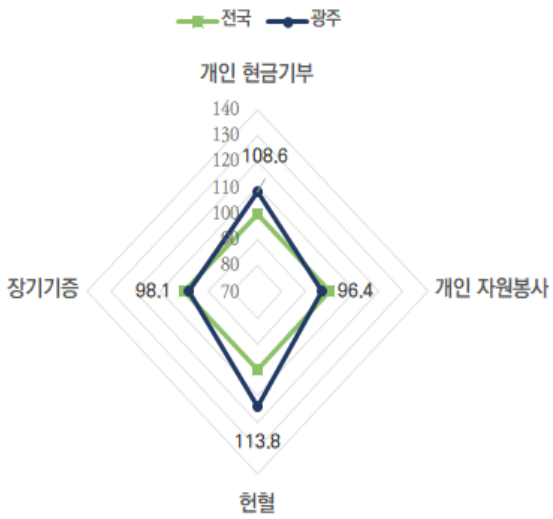
5 지역별 나눔지수
지표의 표준화 결과 (2) 지역별 표준화 점수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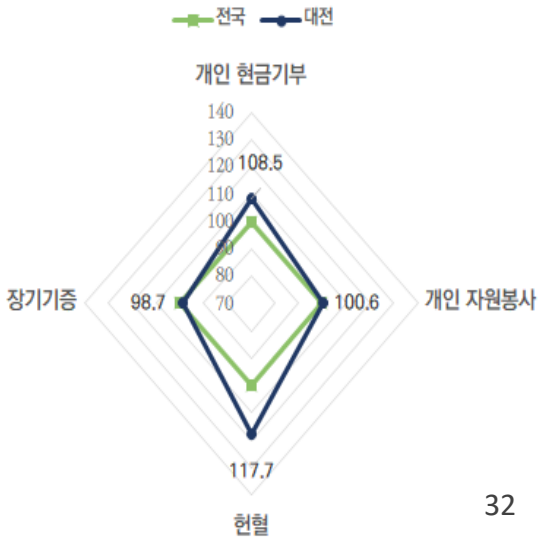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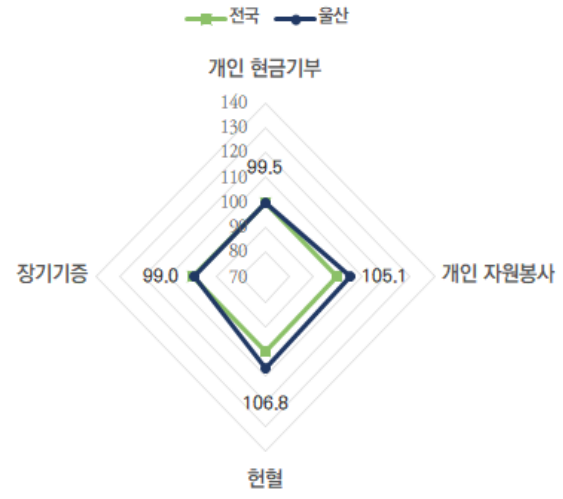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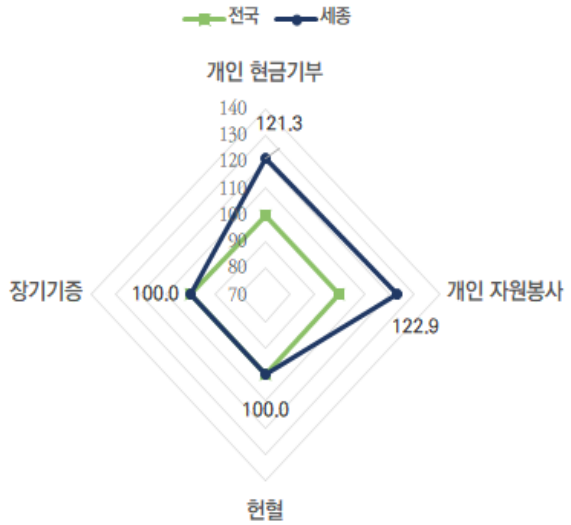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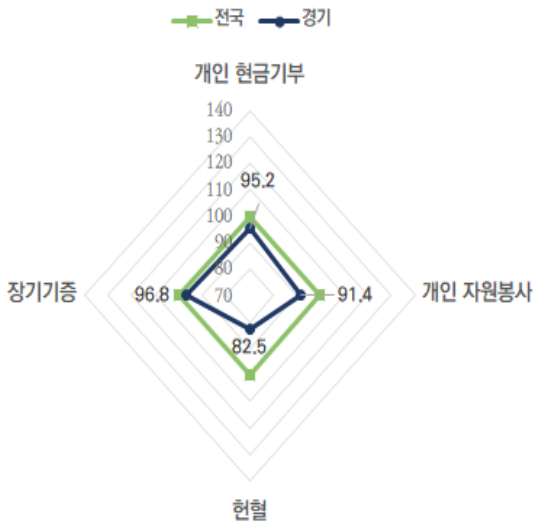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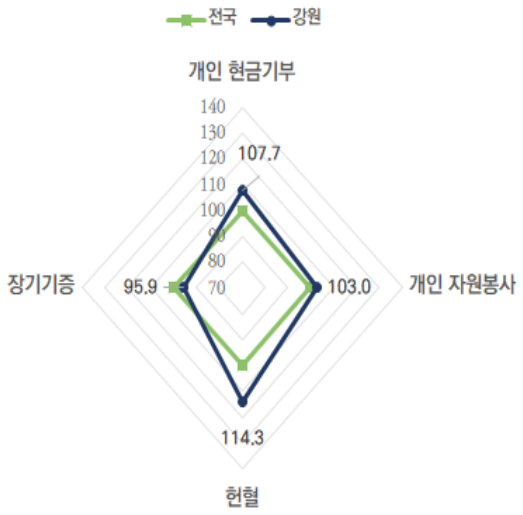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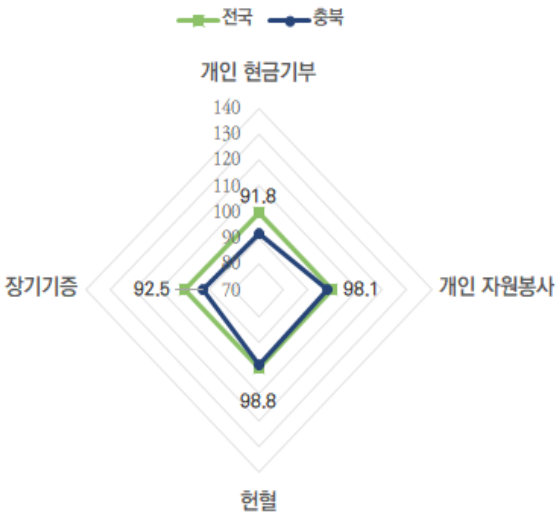
5 지역별 나눔지수
지표의 표준화 결과 (2) 지역별 표준화 점수 – 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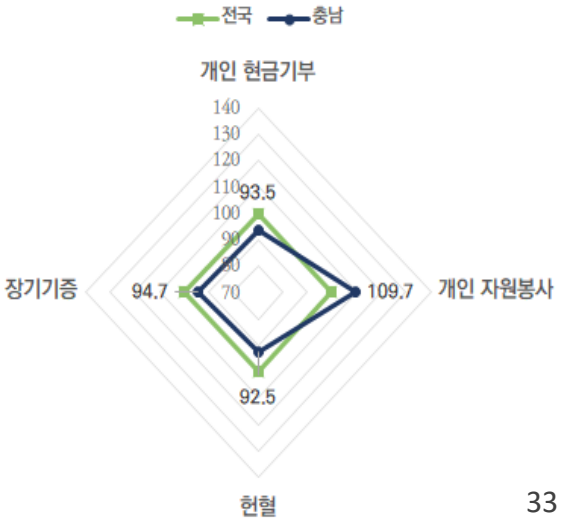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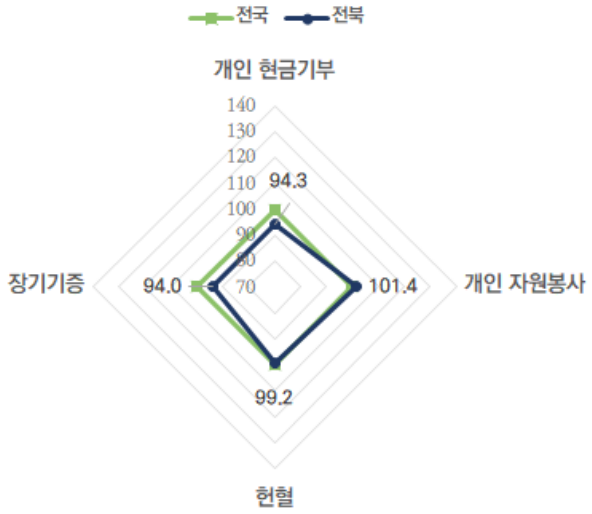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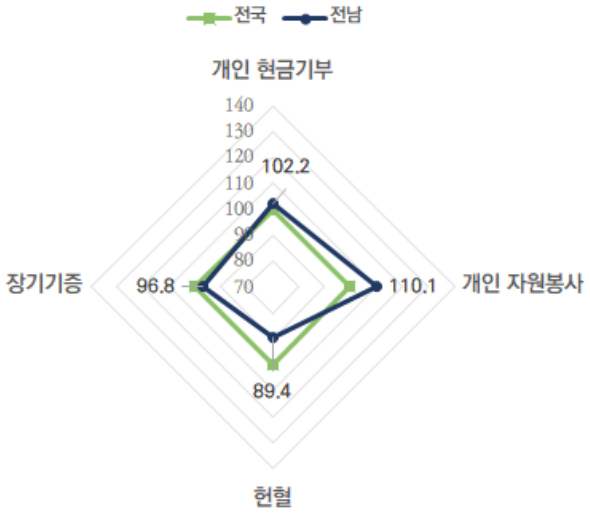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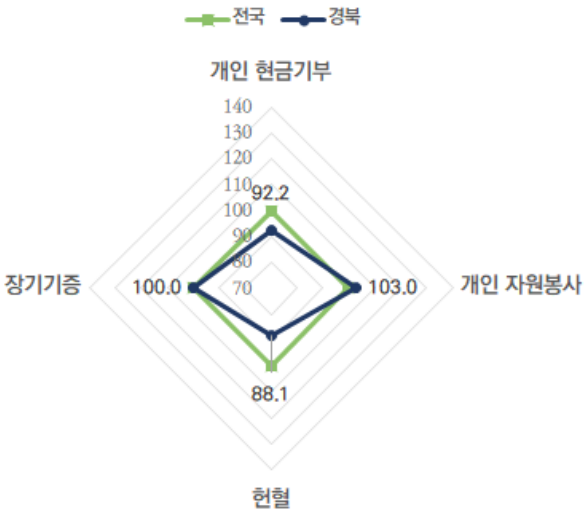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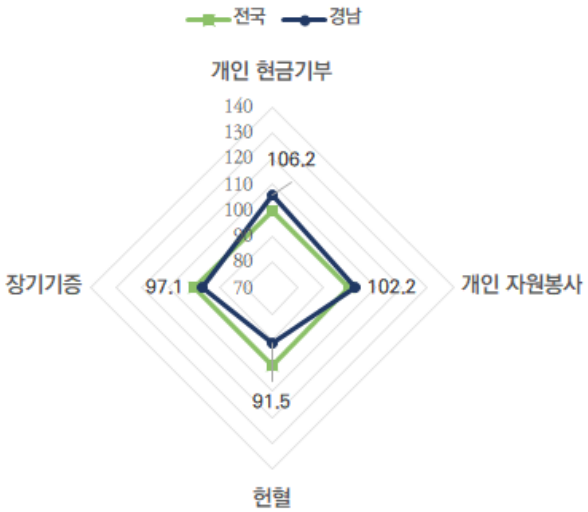
5 지역별 나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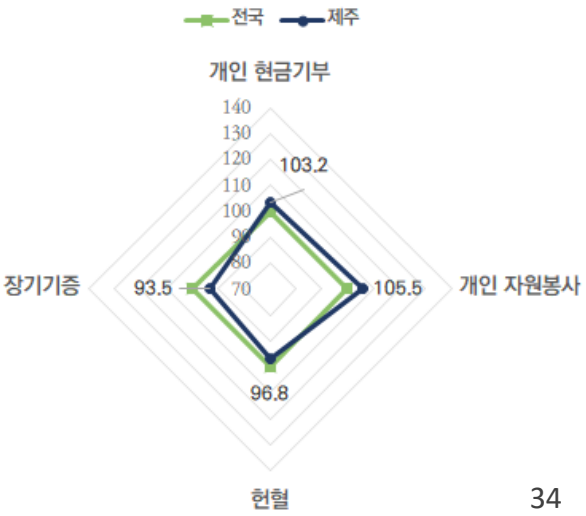
지표의 표준화 결과 (2) 지역별 표준화 점수 –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5 지역별 나눔지수
나눔지수 도출 결과

구분	핵심지수	순위	확대지수	순위	나눔지수	순위
서울	103.7	7	123.0	1	110.1	2
부산	81.6	17	101.3	7	88.2	17
대구	84.4	16	104.7	5	91.2	16
인천	93.3	14	96.8	9	94.5	14
광주	102.5	8	105.9	3	103.6	5
대전	104.5	4	108.2	2	105.8	3
울산	102.3	9	102.9	6	102.5	6
세종	122.1	1	100.0	8	114.8	1
경기	93.3	15	89.7	17	92.1	15
강원	105.4	3	105.1	4	105.3	4
충북	94.9	13	95.7	11	95.2	13
충남	101.6	10	93.6	15	98.9	10
전북	97.8	11	96.6	10	97.4	11
전남	106.1	2	93.1	16	101.8	7
경북	97.6	12	94.1	14	96.4	12
경남	104.2	6	94.3	13	100.9	9
제주	104.4	5	95.1	12	101.3	8
전국	100		100		100	

- 핵심지수
  - 세종(122.1)과 전남(106.1) 순으로 높고, 부산(81.6), 대구(84.4) 순으로 낮음
- 확대지수
  - 서울(123.0), 대전(108.2) 순으로 높고, 경기(89.7), 전남(93.1) 순으로 낮음
- 나눔지수
  - 세종(114.8), 서울(110.1) 순으로 높고, 부산(88.2), 대구(91.2) 순으로 낮음

지역별 기부유형

1 2 3 4 5 6 7

지역 유형화 결과

기부 관련 법인 분포

지역별 기부 유형화 결과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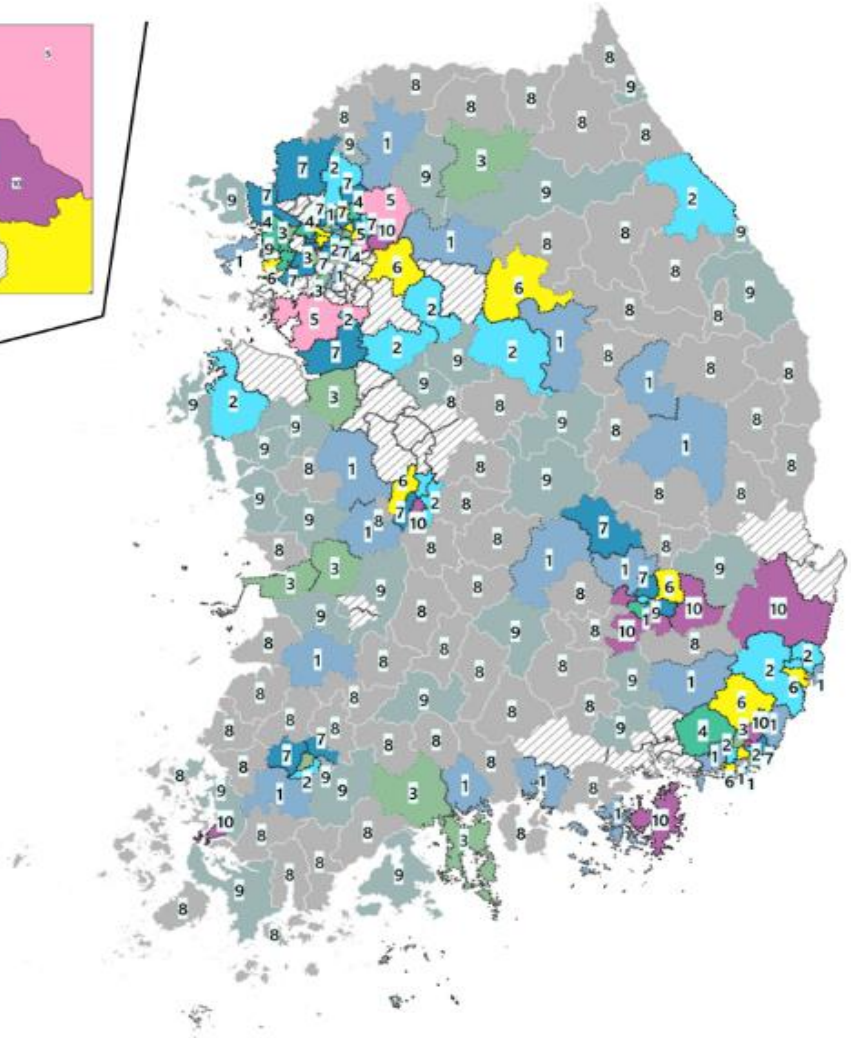
6 지역별 기부유형

지역 유형화 결과

유형구분 기준: 출산율, 총인구수, 노령화, 서비스업, 빈곤율, (1인당)지역총생산, QOL, 투표율

Class	유형
1	중소형 2 (노령/불평등)
2	중소형 3 (QOL)
3	밀집형 1
4	밀집형 3 (고소득)
5	밀집형 4 (인구/산업밀집)
6	중소형 1
7	밀집형 2 (서비스)
8	농어촌형 3 (빈곤)
9	농어촌형 2
10	농어촌형 1 (경계)

→ *출산율, 노령화 비율이 낮고, 서비스업, 지역총생산이 높음*



6 지역별 기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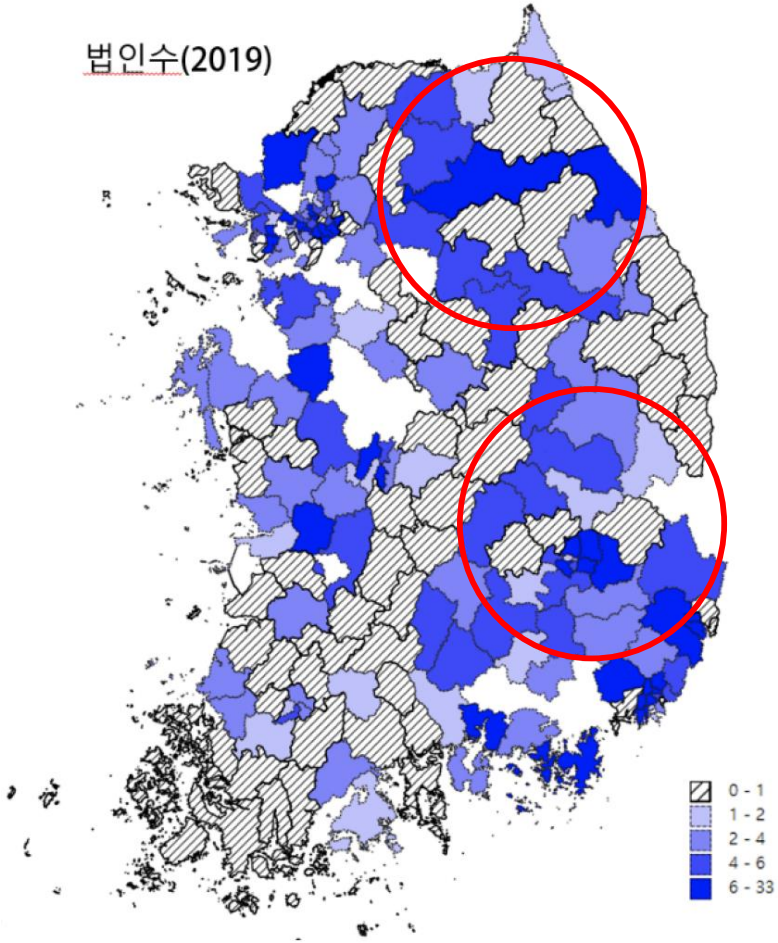
지역 유형화 결과 (지역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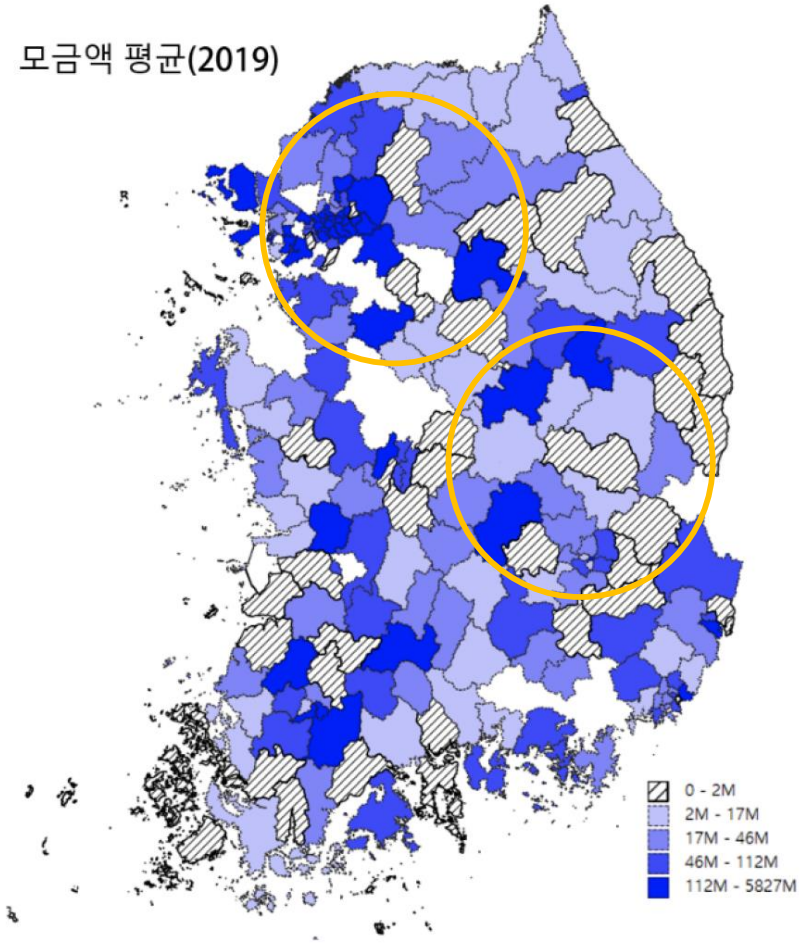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인구수	빈곤율
1	중소형2 (노령/불평등)	경기도 의왕시	12.9	156,206	1.712
2		부산 강서구	11.7	125,409	2.064
3		울산 동구	11.4	161,242	2.136
4		서울 종로구	18.1	146,603	2.411
5		전남 광양시	12.3	156,022	2.464
6	중소형3 (QOL)	울산 북구	7.6	211,524	1.408
7		경기 오산시	8.9	221,911	1.784
8		울산 울주군	13.7	221,479	1.797
9		충남 서산시	17.8	173,575	1.842
10		경기 이천시	13.5	213,615	1.907
11	밀집형1 (투표율)	서울 성동구	14.6	299,044	2.143
12		경기 군포시	12.2	274,329	2.229
13		경기 광명시	13.1	318,488	2.285
14		서울 서대문	16.7	303,057	2.410
15		충남 아산시	12.7	311,551	2.481
16	밀집형3 (고소득)	서울 강남구	13.0	531,575	1.684
17		인천 서구	9.9	537,891	2.442
18		경남 김해시	10.6	535,063	2.958
19		서울 강서구	14.2	587,369	3.267
20		인천 남동구	12.5	530,640	3.549
21	밀집형4 (인구/산업 밀집)	경기 화성시	8.5	784,035	1.137
22		서울 송파구	12.9	662,020	1.547
23		경기 남양주	13.3	686.892	2.142
24	중소형1	경기 광주시	12.4	365,851	1.462

순위	유형명	지역명	노령화	총인구수	빈곤율
25	중소형1	대전 유성구	8.9	348,087	1.551
26		서울 마포구	13.9	366,807	1.827
27		서울 영등포	15.5	360,221	1.924
28		울산 남구	11.2	325,167	2.024
29	밀집형2 (서비스)	서울 서초구	13.2	423,950	1.166
30		경기 김포시	12.0	427,733	1.703
31		경북 구미시	8.9	418,514	1.711
32		서울 구로구	16.0	400,902	1.932
33		경기 시흥시	8.7	457,529	1.959
34	농어촌형3 (빈곤)	경기 과천시	13.9	57,322	1.399
35		충남 계룡시	11.1	43,162	1.453
36		인천 옹진군	24.9	20,643	2.282
37		충남 청양군	33.9	31,802	2.553
38		강원 평창군	26.6	41,954	2.910
39	농어촌형2	충북 진천군	16.0	79,175	2.366
40		강원 홍천군	24.8	69,006	2.727
41		충남 홍성군	22.9	100,011	2.880
42		전남 무안군	20.8	81,088	3.057
43		충북 음성군	20.1	94,506	3.060
44	농어촌형1 (경계)	경기 하남시	12.3	261,485	1.677
45		경남 거제시	10.0	248,003	1.776
46		대구 달성군	11.9	252,616	2.529
47		부산 동래구	17.3	266,204	2.836
48		경북 경산시	16.0	260,352	2.874

6 지역별 기부유형

기부 관련 법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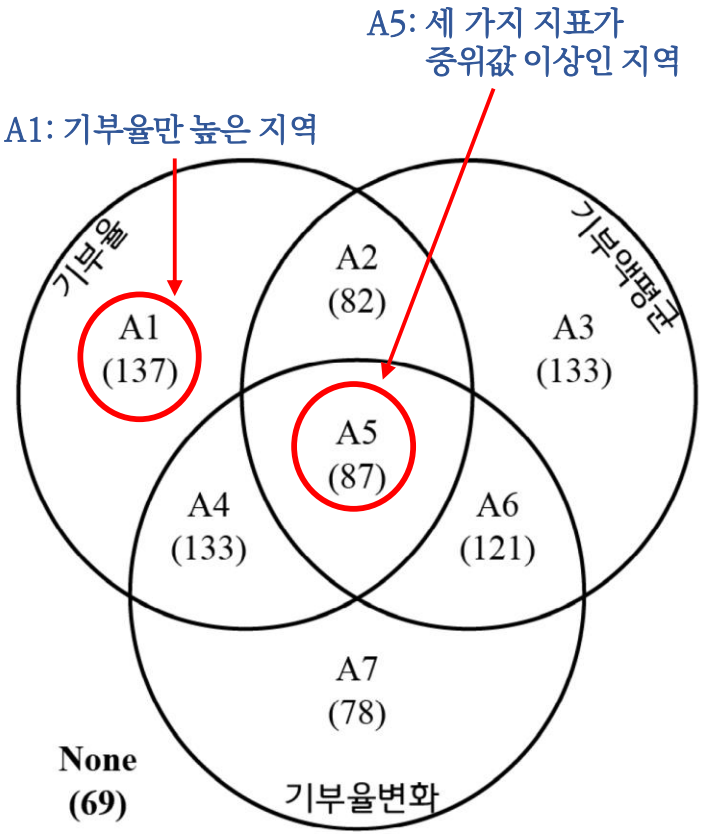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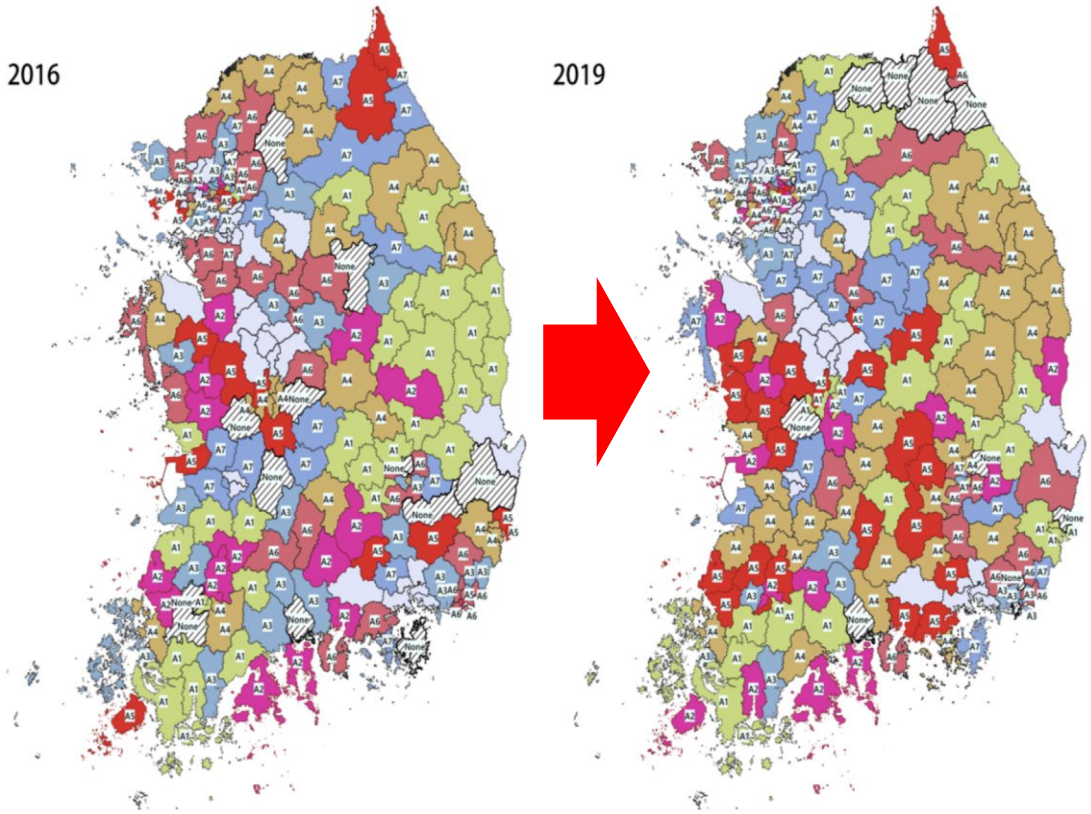
지역별 기부유형

지역별 기부 유형화 결과 (1)



6 지역별 기부유형

지역별 기부 유형화 결과 (2)



[기부 유형의 지역 분포]

- A5 (빨강색: 기부율, 평균기부액,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은 지역): 지역 수와 면적 증가
- 경북 다수 지역: 기부율만 높은 지역 → A4로 변화 (기부율 & 기부변화율 상승)
- 경기 지역 일부(파주, 김포): 기부액,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던 지역 → 기부액만 높은 A3로 변화
- 강원도(철원, 춘천): 기부율, 기부변화율 모두 높았으나 → 기부율만 높은 A1으로 변화
- 가평, 양평, 여주: 기부액, 기부변화율이 모두 높았으나 → 기부변화율만 높은 A7으로 변화
- 경상도, 전라도 지역: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
- 수도권, 강원도 일부지역: 기부변화율이 낮아진 지역 존재

6 지역별 기부유형

회귀분석 : 법인 수, 법인 평균 모금액

Predictors	법인수			법인평균모금액		
	b	CI	p	b	CI	p
(Intercept)	6.86	4.24 – 9.48	<0.001	19.20	15.13 – 23.26	<0.001
Ref.-밀집형4						
중소형2	**-3.08**	**-5.01 – -1.15**	**0.002**	-2.14	-5.92 – 1.63	0.266
중소형3	**-4.51**	**-6.44 – -2.57**	**<0.001**	**-5.70**	**-9.48 – -1.91**	**0.003**
밀집형1	**-2.90**	**-4.89 – -0.91**	**0.004**	-2.43	-6.32 – 1.46	0.221
밀집형3	0.25	-1.90 – 2.40	0.818	-0.72	-4.90 – 3.46	0.735
중소형1	-0.77	-2.73 – 1.19	0.441	-1.46	-5.29 – 2.36	0.454
밀집형2	**-2.51**	**-4.42 – -0.60**	**0.010**	-1.46	-5.20 – 2.27	0.442
농어촌형3	**-5.82**	**-7.74 – -3.91**	**<0.001**	**-6.15**	**-9.88 – -2.41**	**0.001**
농어촌형2	**-5.39**	**-7.32 – -3.46**	**<0.001**	-3.66	-7.42 – 0.11	0.057
농어촌형1	**-2.47**	**-4.54 – -0.40**	**0.019**	-1.11	-5.15 – 2.93	0.590
Ref.-수도권						
중부권	1.28	-1.30 – 3.86	0.331	-0.50	-3.42 – 2.42	0.736
남부권	1.66	-0.61 – 3.94	0.153	-1.24	-3.79 – 1.31	0.340
Observations	840			840		
Conditional R2	0.368			0.179		

[법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법인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지역의 규모, 경제적 수준과 일정한 서열관계가 있음을 확인

- **법인 평균 모금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지역 유형간 일정한 차이가 관찰, 법인수에 비해서는 서열적인 관계가 다소 약하게 포착됨

6 지역별 기부유형

회귀분석 : 기부율

Predictors	기부율			기부평균액		
	b	CI	p	b	CI	p
(Intercept)	4.39	3.33 – 5.46	<0.001	53.95	1.83 – 106.07	0.042
법인수(A)	**0.26**	**0.14 – 0.38**	**<0.001**	-2.22	-8.50 – 4.07	0.490
법인평균모금액	-0.00	-0.01 – 0.01	0.861	**0.46**	**0.04 – 0.88**	**0.032**
Ref.=밀집형4						
중소형2	**2.17**	**1.25 – 3.09**	**<0.001**	-41.93	-90.92 – 7.06	0.093
중소형3	**2.29**	**1.37 – 3.21**	**<0.001**	-20.55	-69.46 – 28.36	0.410
밀집형1	**2.20**	**1.27 – 3.14**	**<0.001**	-14.31	-64.09 – 35.46	0.573
밀집형3	**1.58**	**0.47 – 2.68**	**0.005**	-47.24	-106.21 – 11.73	0.116
중소형1	**2.12**	**1.19 – 3.05**	**<0.001**	-16.98	-66.58 – 32.63	0.502
밀집형2	**1.45**	**0.51 – 2.40**	**0.003**	-24.64	-74.93 – 25.65	0.337
농어촌형3	**2.41**	**1.49 – 3.32**	**<0.001**	-9.44	-58.21 – 39.34	0.705
농어촌형2	**2.47**	**1.55 – 3.39**	**<0.001**	-10.94	-59.96 – 38.08	0.662
농어촌형1	**1.93**	**0.92 – 2.93**	**<0.001**	-9.63	-63.02 – 43.76	0.724

[기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기부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법인 수는 유의미한 정적효과가 있음

  → 사회복지, 기부 전문 기관의 활용이

  일정 수준에서 지역내 기부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됨

분석결과 요약

이론적 함의

7 소결
분석결과 요약

1) 기부관련 법인 분포와 모금 규모: 높은 수준의 지역 편차 확인

2) 기부 수준의 지역 편차 확인 **의미는?**
- 기부 문화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어 있음
- 지역의 독특성, 기부 관련 촉진 기관 역할이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

3) 기부 관련 기관이 기부 행위에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7 소결
이론적 함의

1) 국내 기부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제시

2) [기존연구] 지역 비교를 도시, 농어촌 또는 인구밀집지역 여부만으로 구분

[본 연구] 시군구 210개를 대상으로 유형 분류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통한 기부 지표 분석

3) 지역 유형이 기부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 도출

4) 지역 내 모금기관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상반된 보고와 달리, 지역 내 모금기관 존재가 기부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 확인

감사합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